

『唐書誌傳通俗演義』의 간행과 ‘太宗東征記’의 성격*

정 호 섭**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唐書誌傳通俗演義』의 간행과 판본, 그리고 저자인 熊大木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서연의의 내용 가운데 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한 내용을 언급하는 자료가 太宗東征記임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그 내용의 검토를 통해 그 서술이 실제 역사와 다른 면도 상당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특히 고구려와 관련하여 많은 가공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당 태종과의 전투를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이 주목되는데, 바로 안시성주 양만춘도 이러한 가공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였다. 고구려의 여러 성을 지킨 가공의 장수의 이름들이 당서연의에 다수 언급되고 있는 바, 이는 熊大木의 상상력에 기반한 창작의 소산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당서연의나 태종동정기 등은 조선에 널리 유통된 것 같지는 않은 듯하다. 이시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서연의를 직접 확인하고서 언급한 기록이 잘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국내에서 어떤 판본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당시 조선 지식인층들이 이전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나 이전 학자들의 책을 통해 읽었던 내용을 확인없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서연의 혹은 태종동정기는 중국 3대 황제의 하나로 칭송받는 당 태종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안시성 전투와 그 성주를 주목한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구설의 대상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결국 이러한 전승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기억되어 문학적 서사가 역사적 사실화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던 셈이다.

[주제어] 웅대목, 당서지전통속연의, 고구려, 태종, 양만춘, 안시성, 태종동정기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太宗東征記’의 내용과 성격 |
| Ⅱ. 熊大木의 『唐書誌傳通俗演義』 간행과 板本 | Ⅳ. 맺음말 |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 hosubj@korea.ac.kr

I. 머리말

중국 명대의 연의식 소설인 『唐書誌傳通俗演義』는 『秦王演義』, 『唐書演義』, 『秦王演義唐國誌傳』, 『唐國誌傳』, 『唐傳演義』, 『唐書誌傳』, 『唐史誌傳』, 『隋唐演義』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唐書誌傳通俗演義』가 주목되는 것은 내용 가운데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선시대 문헌에 안시성주 양만춘에 대한 전거로 등장하는 것이 ‘당서연의’와 ‘太宗東征記’이다. 그렇다면 이 두 자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태종동정기’에 대해서는 『당서지전통속연의』로 추측하기도 하였거나,¹⁾ 최근에는 『당서지전통속연의』의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²⁾ 중국의 어떤 기록에도 ‘태종동정기’라는 특정한 서명을 가진 자료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당서연의나 ‘태종동정기’가 어떤 내용으로 된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당서연의’가 ‘태종동정기’와 동일한 자료라고 했을 때 내용도 검토하여 그 성격과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안시성주 양만춘 전승처럼 우리 역사인식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문학적 서사가 역사화된 사실도 재확인할 여지도 있다.

『唐書誌傳通俗演義』의 저자인 熊大木은 중국 통속소설이 발전, 번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상정된다. 그런데 熊大木의 생몰년을 비롯한 구체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때문에 최근까지 중국학계의 소설 연구에 관한 연구성과를 통해 저자인 웡대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唐書誌傳通俗演義』의 간행과 판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학계에서 여러 판본들을 대교 교감하여 살펴본 결과 책의 구성은 총 八卷 九十節로 제시되었다. 『唐書誌傳通俗演義』의 판본은 16세기에 간행된 것이 2종, 17세기에 간행된 것이 2종 등 4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다양한 영인본과 인쇄본들이 중국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들 자료를 살펴서 당서지전통속연의의 판본과 간행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唐書誌傳通俗演義』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태종동정기’라고 표현되는 제76절부터 90절까지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통해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보고 『唐書誌傳通俗演義』라는 문학작품이 과연 조선에까지 도입되어 널리 보급된 것인지의 여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29: 2, 2006, 376~377쪽.

2) 남재철은 ‘태종동정기’는 당서연의를 염두에 두고 그 일부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남재철, 「安市城主의 姓名 ‘양만춘’ 考證(Ⅰ)-姓名의 出處 樣相 檢討를 中心으로-」, 『동아시아고대학』 35, 2014, 132~133쪽; 정호섭,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와 안시성주 전승의 추이」, 『고구려발해연구』 67, 2020).

II. 熊大木의 『唐書誌傳通俗演義』 간행과 板本

『唐書誌傳通俗演義』의 저자는 熊大木으로 알려져 있다. 『唐書誌傳通俗演義』와 熊大木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 거의 연구된 바가 없어서 주로 중국학계의 연구성과가 토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元末明初에 『三國演義』와 『水滸傳』 등이 간행된 뒤 중국의 통속소설의 창작은 약 20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嘉靖 연간에 이르러서야 연의소설의 창작이 다수 진행되었다. 이러한 통속소설 중에 熊大木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大宋中興通俗演義』, 『唐書誌傳通俗演義』, 『全漢誌傳』, 『南北兩宋誌傳』이다. 熊大木의 구체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熊大木이 편찬한 『大宋中興通俗演義』에 “鰲峰 熊大木이 編輯하였다”, 『唐書誌傳通俗演義』에 “鰲峰 熊鍾谷이 編集하였다”, 『全漢誌傳』에 “鰲峰 후세 熊鍾谷이 編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熊鍾谷의 이름은 福鎮이고 字는 大木이며 鍾谷은 그의 號인 것으로 보인다.³⁾

중국 학계에서는 熊大木을 대체로 통속소설 편찬자 및 書坊主로 이해하고 있다. 胡士瑩은 『話本小說概論』에서 「熊龍峰刊四種小說」을 서술할 때 熊大木과 熊龍峰을 형제로 추정하고 모두 書坊主라고 하였다.⁴⁾ 張秀民도 역시 熊大木과 熊龍峰을 熊氏 忠正堂 書坊主로 보았다.⁵⁾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熊大木의 고향인 福建省 建陽縣 書坊鄉을 방문하여 『潭陽熊氏宗譜』를 조사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方彥壽는 『潭陽熊氏宗譜』에서 熊大木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지만, 刻書家 熊宗立의 曾孫 熊福鎮의 號가 鍾谷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熊福鎮과 熊大木이 같은 지역,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熊福鎮과 熊大木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熊大木이 “鰲峰” 혹은 “鰲峰後人”으로 자칭하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 陳大康은 『玉篇』에서 鎮에 관한 해석은 “重也壓也”이므로 뜻이 大木과 상통하며 書坊主는 字로 세상에 전해지므로 熊福鎮의 字는 大木이고 號는 鍾谷이며 嘉靖朝에 활동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⁷⁾ 黃冬柏은 명대 書坊의 명호가 자주 바뀌고, 書坊主가 별명을 자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熊大木과 熊龍峰이 동일인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⁸⁾ 이러한 점을 보면 熊大木은 명나라 嘉靖 년간 福建 建寧府 建陽縣 사람으로 사서에 기반한 통속소설을 쓴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熊大木의 書坊主 신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견해도 없지는 않다. 그것은 熊大木이 편찬한 연의소설 이외의 다른 기록에도 熊大木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日記故事』 九卷에는 “建安의 草窗 虞韶가 찬집하였고, 書林의 鰲峰 후세 熊大木이 校註하였다”⁹⁾는 기록이 있고, “嘉靖 21년 가을철 음력 7월 穀旦에 후세인 熊大木이 기록하였다”¹⁰⁾라는 기록도 있다. 『(新刊明解音釋校正)書言故事大全』 十卷에는

3) 陳大康, 「關於熊大木字、名的辨正及其他」, 『明清小說研究』 3, 1991.

4) 胡士瑩, 『話本小說概論』(下冊), 中華書局; 胡士瑩, 2011, 『話本小說概論』(下冊), 商務印書館, 1980, 625쪽.

5) 張秀民, 「明代印書最多的建寧書坊」, 『文物』 6, 1979, 77쪽.

6) 方彥壽, 「明代刻書家熊宗立述考」, 『文獻』 1, 1987, 237~238쪽.

7) 陳大康, 「關於熊大木字、名的辨正及其他」, 『明清小說研究』 3, 1991, 160~163쪽.

8) 黃冬柏, 「日本內閣文庫所藏〈熊龍峰四種小說〉考論」, 『中正大學中文學術年刊』 1, 2011, 215~218쪽.

9) 建安草窗虞韶以成纂集 書林鰲峰後學熊大木校註.

10) 時嘉靖二十一年秋七月穀旦後學熊大木識.

“胡繼宗이 엮었고, 陳玩直이 訓解하였으며, 熊大木이 교정하였다. 명나라 萬曆 16년 熊氏 種德堂 刻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¹¹⁾ 『新刊明解音釋校正書言故事大全』 五卷에는 “송나라 胡繼宗이 지었고, 명나라 陳玩直이 訓解하였으며, 熊大木이 重校한 刻本이다”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¹²⁾ 『新刊類纂天下利用通俗集成錦繡萬花谷文林廣記』 十四卷에는 “唐士登이 지었고, 熊大木이 集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 陳旭東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그가 편찬하거나 校註한 사실만을 밝혔을 뿐, 간행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근거로 熊大木이 建邑의 博洽한 士였기 때문에 명성이 서방에 널리 알려져, 書坊主의 요청을 받아 서적을 편찬하거나, 교정하였을 뿐 책을 직접 간행하는 書坊主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¹⁴⁾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중국 학계의 소수설이고, 다수설은 熊大木을 명대 建陽熊氏 刻書世家的 계승자, 즉 忠正堂의 書坊主로 이해하고 있다.¹⁵⁾

중국에서 거의 200여 년 동안 필사본으로만 소설이 유통되던 상황이 『三國演義』와 『水滸傳』이 嘉靖 연간에 간행됨으로써 변화하였다. “正史에 근거하여 小說을 채택하였고, 文辭를 증거로 삼아 好尚에 통하였다. 俗되지 않고, 虛하지 않으며 쉽게 보고 파악할 수 있어서, 史氏의 아주 오래된 글이 아닌데도 警傳의 諷諧한 기운을 물리쳤다. 백년에 걸쳐 萬事를 概括하였다”¹⁶⁾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여러 書坊들은 『三國演義』와 『水滸傳』 간행에 참가하였고, 余象門가 “坊間에서 『三國』을 인쇄하는데 어찌 수십 집뿐이겠는가”, “『水滸』 한 책을 坊間에서 계속 인쇄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간행자가 많았다.¹⁷⁾ 書坊主들은 이러한 소설류가 유행을 타게 되자 여러 책을 간행하였다. 연의소설은 문인 사이에서 유통은 되었지만, 전통적인 관념의 제한으로 문인들이 통속연의의 창작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소설 시장이 많은 이익을 남길 정도로 큰 규모였으나, 당시 소설 작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書坊主이었다. 서방주들은 직업상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소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설을 편집하여 간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¹⁸⁾

이러한 배경에서 처음으로 소설의 원고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福建 建陽書坊 清白堂主 楊湧泉이었다. 그는 岳飛의 업적이 실려 있는 『精忠錄』을 통속소설로 개편하여 간행하면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의 사돈 忠正堂主 熊大木을 찾아가 부탁하였다. 楊湧泉은 “나를 대신해 수고하여, 辭話를 演出하라”고 하면서 재차 부탁하였고, 熊大木은 “재주가 반고와 사마천의 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어찌 널리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大宋演義中興英烈傳』을 편찬하여 완성하였다.¹⁹⁾ 이 소설의 간행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현존한 판본으로 보았을 때 明代에 적어도 7곳의 書坊에 의해 번각되

11) 胡繼宗編 陳玩直解 熊大木校 明萬曆十六年 熊氏種德堂刻本.

12) 宋胡繼宗撰 明陳玩直解 熊大木重校刻本.

13) 唐士登撰 熊大木集成.

14) 陳旭東, 「熊大木身份新考」,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7, 2012, 98~101쪽.

15) 蘇亮, 「熊大木書坊主身份的考證尚難動搖—與陳旭東先生商榷」, 『中南大學學報』 4, 2013, 191~192쪽.

16) 高儒, 『百川書誌』 卷6 野史條.

17) 『批評三國誌傳·三國辨』; 『忠義水滸誌傳評林·水滸辨』.

18) 陳大康, 「熊大木現象: 古代通俗小說傳播模式及其意義」, 『文化遺產』 2, 2000, 99쪽.

19) 熊大木, 『大宋演義中興英烈傳』 序.

있고 황궁에까지 유통되었기 때문이다.²⁰⁾ 통속소설의 편찬과 간행에 성공을 이룬 熊大木은 이어 『唐書誌傳通俗演義』, 『全漢誌傳』, 『南北兩宋誌傳』 등 통속소설을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熊大木의 이러한 행동은 부를 추구하려는 書坊主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고, 다른 書坊主들도 통속소설을 창작하여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嘉靖, 萬曆 연간 통속소설의 창작은 거의 書坊主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清末까지 이어졌다. 書坊主가 직접 소설을 편찬하고 간행하는 모델은 熊大木부터 시작하였던 것이고, 熊大木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熊大木의 역할은 지대했다.²¹⁾

이와 같은 明代의 장편 역사 연의소설인 『唐書誌傳通俗演義』는 『秦王演義』, 『唐書演義』, 『秦王演義唐國誌傳』, 『唐國誌傳』, 『唐傳演義』, 『唐書誌傳』, 『唐史誌傳』, 『隋唐演義』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²²⁾ 이 책의 구성은 총 8卷 90節이다. 『唐書誌傳通俗演義』 판본은 16세기에 간행된 것이 2종이 확인된다. 이보다 앞서 별도의 판본이 존재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1553년 판본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17세기 판본도 2개가 있다. 현존 판본으로는 明 嘉靖 32年(1553)의 楊氏清江堂刊本(日本內閣文庫 소장), 明 萬曆 21年(1593)의 唐氏世德堂刊本(國家圖書館, 日本靜嘉堂文庫, 日本尊經閣文庫 소장), 明 余氏三臺館刊本(日本宮內省圖書寮 소장), 明 萬曆 48年(1620)의 武林藏珠館刊本(日本內閣文庫 소장) 등 4가지가 있는 것이다.²³⁾ 嘉靖 32年(1553)의 楊氏 清江堂刊本에는 “新刊參采史鑒唐書誌傳通俗演義”라 적혀 있고 別題는 “秦王演義”라 되어 있다. 머리에 嘉靖 癸丑年 李大年의 序가 있다. 8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표제는 90회이나 실은 89회이다. 그림은 없고 한 면에 12행, 각 행 25자이다. 지금 발견한 여러 판본 중에서 이 판본이 제일 이른다. 그 서문은 다음과 같다.

『唐書演義』는 書林 熊子 鐘谷이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이 완성되자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읽어보니 『通鑑綱目』을 문란케 하는 나쁜 점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다면, 이 책은 세상에 널리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가 또 말하기를, “비록 그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坊間의 『三國誌』, 『水滸傳』과 비슷하여 반드시 취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詞話 중에 詩詞와 檄書는 자못 文理에 의거하였기에, 가령 속인과 시인이 그 책을 펼칠 때 역시 스스로 여러 가지 기쁨과 경모를 얻을 수 있으니 어찌 그것이 모두 틀렸다고 해서 소홀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全文은 歷年の 실적에 부족함이 있고, 그 사실을 명백하게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였기에 올바르게 책을 보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말에 동의하면서 물러나니, 제가 말하기를, “가령 熊子를 다시 만나면, 역년의 사실을 그에게 알리도록 하여 그가 이것(역년의 사실)을 정성스럽게 고쳐서 5대까지 도달한 후 그친다면 진실로 바라던 바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붓을 잡아 그것을 기록하여 학문이 있는 사람을

20) 孫楷第,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 人民文學出版社, 1981, 30쪽, “余曾見法人鐸爾孟氏藏一明抄大本 圖版文中 彩繪甚工 雖不免匠氣 的是嘉靖時內府抄本 則當時此書曾進禦矣”.

21) 陳大康, 앞의 논문, 2000, 99~103쪽.

22) 張兵, 『五百種明清小說博覽』上, 上海辭書出版社, 2005, 69쪽.

23) 孫楷第, 위의 책, 1981, 32~36쪽; 江蘇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社, 1990, 58쪽; 張兵, 앞의 책, 2005, 69쪽.

기다린다. 이때는 龍飛 癸醜年(1553년) 仲秋 朔日으로, 江南散人 李大年이 기록하고 書林 楊氏清堂에서 간행하였다.

이와 함께 日本靜嘉堂文庫, 日本尊經閣文庫에 소장한 萬歷 21年(1593)의 唐氏世德堂刊本은 白紙 大字이고, “新刊出像補訂參采史鑒唐書誌傳通俗演義題評”이라 적혀 있고, “姑孰 陳氏의 尺蠖齋가 評釋하였다”, “繡谷 唐氏의 世德堂이 校定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 면에 12행, 각 행 24자이다. 전서는 8권 89회로 眉欄에 평이 있고 그림이 정문 속에 있는데 畫工을 “王少淮”라고 하였다. 國家圖書館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黑紙本이고 판각은 같다. 책은 온전하지 못해 7권 78회만 남아 있다.²⁴⁾ 한편 무명씨의 序가 있는데 癸巳 陽月이라 서명되어 있어 萬歷 21年(1593)으로 추정된다. 서문은 다음과 같다.

前漢, 後漢, 魏, 吳, 蜀, 唐, 宋부터 시작하여 모두 正史가 있는데, 그 사실들을 문장으로 기록한 것은 公文書 뿐만 아니라. 이것의 뒤에는 바로 演義가 있다. 연의는 욕망을 통하게 하는 것을 의리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流俗은 곧 司馬遷, 班固, 陳壽의 한 글자도 눈에 걸지 않아도 모두 道와 赤帝를 말할 수 있으며, 司馬懿를 괴이하게 여기고, 伏龍(諸葛亮)을 연민하며, 曹瞞(曹操)을 추모할 수 있는 것은 곧 연의 때문이다. 연의는 비록 俗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意義는 심오하다. 당나라는 高祖가 창업하였으나, 高祖는 정직하고 강직했다. 이 때문에 太宗이 뒤에서 조정하고 지휘하여 집안을 나라로 바꾸었다. 다만 秦으로 봉한 적이 많아서 속어에 자주 小秦王으로 불리는 자는 태종이다. 아아! 당나라가 지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나 손목을 불끈 쥐고 우러러보면, 곧 秦王이 몹시 화를 내며 손가락을 가리키고, 곧 太子 建成을 제압하는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는가? 秦王과 경쟁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사마귀가 앞다리를 치켜들어 대적하는 것(무모한 짓)과 다르지 않으며, 참새가 부리로 마시는 데 성공하는 것과 같을 뿐이다. 아아! 태종이 군대를 부리는 것은 곧 당시에 李靖과 魏征 등 여러 대신들이 통치를 논하는 것에 불과했고, 곧 房玄齡, 杜如晦 등 여러 대신들이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것에 불과했다. 즉 옛날의 帝王은 일반 서민들이 능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일찍이 큰 소리로 그것을 찬탄하였고, 『신당서』와 『구당서』가 이것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演義에 이를 취하여 기록하였으니, 또한 뜻한 바가 자못 이루어졌다. 다만 그 文詞가 어떨 때는 정사에 전해지고, 세속에서 모두 통하지 않기도 한다. 그 사실들은 어떨 때는 기만한 것을 선택하여 正史에 혹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 앞을 간단하게 채집하고 연결하였으므로, 연의를 비평하고 또한 光祿의 志를 교사했다. 책이 완성되자 敍를 기술하였다. 아아! 正史는 저도 일찍이 배운 적이 있다. 곤궁하고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 끝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패관 소설에서 올바름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萬舞를 올리고 또한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가? 서양 미인을 남겨 太宗에게 주는 건가? 어찌 멀리 생각하지 못하는가? 癸巳 陽月 尺蠖齋에서 작성하였다.

또 다른 판본인 明 余氏三臺館刊本은 “新刻按鑑演義全像唐書誌傳”이라 되어 있다.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 그림이, 아래에는 본문이 있다. 정문은 한 면에 13행, 각 행 23자이다. “紅雪山人 余應鰲가 編次

24) 江蘇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1990, 앞의 책, 58쪽.

하였다”, “潭陽의 書林 三臺館에서 간행하였다”라고 서명되어 있는데 실은 熊鍾谷本이다. 머리에 三臺館主人의 序가 있는데, 序文은 唐氏世德堂刊本과 같다. 정문 서두에 古風 한편이 있는데 각 판본과 같으며 단지 “鍾谷子가 古風 한 편을 저술하고, 단독으로 당나라가 건립된 이유를 제시하였다”라는 두 구절만 삭제하여 원저자의 성명을 피하였다. 그러나 권1 제7절 「李密擁眾寇東都」에 “鍾谷은 여기까지 演義하다가 또한 七言絶句를 지었다” 등의 내용은 그대로 남겨두었다.²⁵⁾ 萬曆 48年(1620)의 武林藏珠館刊本은 “新刊徐文長先生評唐書演義”라 되어 있다. 8권 90회로서 “隋唐演義”라는 別題가 있고, “武林 藏珠館에서 책을 남”이라 서명되어 있다. 머리에 萬曆 庚申 錢塘 黃士京二馮 序가 있고, 앞에 그림이 32쪽에 64폭이 붙어 있고 板心에 “藏珠館”이라 찍혀있다.²⁶⁾

현대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唐書誌傳通俗演義』의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1985년 臺灣의 天一出版社에서 楊氏清江堂刊本을 4권으로 영인하여 발행하였다.²⁷⁾ 1990년에 中華書局 역시 楊氏清江堂刊本을 영인하여 발행하였다.²⁸⁾ 이어 1991년에 中華書局에서는 唐氏世德堂刊本을 영인하여 간행하였다.²⁹⁾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와서 인쇄본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 春風文藝出版社에서 출판한 『唐書誌傳通俗演義』 인쇄본이 최초이다. 春風文藝出版社에서는 楊氏清江堂刊本을 底本으로 하고 唐氏世德堂刊本, 武林藏珠館刊本을 參校本으로 삼아 처음으로 집교하여 출판하였다. 武林藏珠館刊本을 참고하여 현존 간본의 목차를 정리하였으며, 저본에서 빠진 36회의 제목을 보완하였다. 또한 저본 37회의 내용을 36회, 37회로 분리하여 저본에서 빠진 36회의 내용을 보충하였다.³⁰⁾ 그 뒤로 1998년 青海人民出版社,³¹⁾ 1999년 延邊人民出版社,³²⁾ 1999년 中國戲劇出版社,³³⁾ 2003년 中國文史出版社³⁴⁾ 등 여러 차례 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春風文藝出版社에서 발행한 『唐書誌傳通俗演義』 點校本과 같다. 결국 전체 판본을 합쳐서 교점본이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 두 개의 序文과 姓氏 唐臣紀 및 諸夷蕃將紀와 別傳,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권에서 제8권까지 전체 90절의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唐書誌傳通俗演義』가 明代부터 많이 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설 연구자들은 『唐書志傳通俗演義』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특히 孫楷第는 『唐書志傳通俗演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敘次와 情節은 한결같이 通鑑을 따랐고, 순서는 원문을 그대로 베껴 연결하였다……본인이 득의양양했겠지만 史實은 매우 잘못되었다. 스스로 博雅하다 긍정했겠지만, 백성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말

25) 孫楷第, 앞의 책, 1981, 34쪽.

26) 江蘇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앞의 책, 1990, 58쪽.

27) 天一出版社, 『唐書誌傳通俗演義』 1, 2, 3, 4, 『明清善本小說叢刊』, 1985.

28) 中華書局, 『唐書誌傳通俗演義』, 『古本小說叢刊』 4, 1990.

29) 中華書局, 『唐書誌傳題評』, 『古本小說叢刊』 28, 1991.

30) 春風文藝出版社, 『唐書誌傳通俗演義』, 『中國古代珍稀本小說續』 14, 1997.

31) 青海人民出版社, 『唐書誌傳通俗演義』, 『中國古典文學百部』 44, 1998.

32) 延邊人民出版社, 『唐書誌傳通俗演義』, 『中國古典文學寶庫』 82, 1999; 延邊人民出版社, 『唐書誌傳通俗演義』, 『中國微型古典小說百部』 82, 1999; 延邊人民出版社, 『唐書誌傳通俗演義』, 『中國古典小說百部』 5, 1999.

33) 中國戲劇出版社, 『唐書誌傳通俗演義』, 『中國古典小說五百部』, 1999.

34) 中國文史出版社, 『唐書誌傳通俗演義』, 『中國古典文學名著』 2, 2003.

까지 나왔다. 그러나 (웅대목이) 봤던 책은 朱子綱目에 불과하였다. 司馬光의 資治通鑑이라도 살필 겨를이 없었다. 史書를 조사함에 이미 學力이 없는데도 演義를 창작하는 데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니 그 결과 작품의 體裁는 史抄, 小說, 文學, 考定이 아니게 되었다. 무릇 前人의 성격과 취미는 직접 正史에서 구할 수도 없고, 환상으로 개인이 상상하는 事實과 인물을 꾸며낼 수도 없다. 打話人이 하는 바처럼 훌륭하면서도 통속적이어서 누구나 다 감상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이르지 못해서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과거 우리나라 소설 중 이 같은 종류가 남아 있으니 역시 불행한 일이라 할 만 하구나.³⁵⁾

위의 내용은 대단한 약평이라고 할 만한데, 『唐書志傳通俗演義』는 전형적인 “按鑒演義”의 작품이다. 『唐書志傳通俗演義』의 내용을 살펴보면 孫楷第가 말한 것처럼 “順序照抄原文而聯綴之” 즉 순서에 따라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연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熊大木은 『資治通鑑綱目』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일부만 수정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은 『資治通鑑』의 장편서사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중요한 역사 사건을 집중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수미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고사를 설명하는 듯한 것이었기에 소설의 서술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唐書志傳通俗演義』도 역사적 사건을 서술할 때 『資治通鑑綱目』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던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1절 李世民父子倡義起兵, 13절 司馬德戡等弑煬帝, 56, 57절 玄武門之變 등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資治通鑑綱目』의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³⁶⁾

그러나 熊大木은 『資治通鑑綱目』의 원문을 옮긴 것에 그친 게 아니라 『資治通鑑綱目』에 서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많은 내용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唐書志傳通俗演義』 전문은 글자 수가 약 32만 자이고, 이 시기에 관한 『資治通鑑綱目』의 내용은 약 18만자이다. 『唐書志傳通俗演義』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면 연관된 내용의 글자 수는 약 8만자 정도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唐書志傳通俗演義』는 『資治通鑑綱目』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24만자 가량이나 추가한 것이다. 추가 방식을 살펴보면 熊大木은 『資治通鑑綱目』에서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은 중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였을 뿐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는 정도에만 그쳤는데, 『唐書志傳通俗演義』는 연의소설로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간략하게 기록한 사료들을 상세한 문학서술로 전환하였다. 예를 들어 『唐書志傳通俗演義』중 41~42절의 주요내용인 秦王不疑尉遲恭反叛 反以金相賜, 秦王以五百騎行戰地 被鄭兵圍困, 單雄信追殺秦王, 尉遲恭救出秦王 등은 『資治通鑑綱目』의 내용과 일치한다. 하지만 『資治通鑑綱目』에는 그 내용이 200여자에 불과하였는데, 『唐書志傳通俗演義』에서는 3,000여자로 늘어났다. 내용을 늘린 방법은 첫째, 사건의 발단과 결말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또한 상상력에 기반한 허구적 서술을 통해 내용을 상당 부분 추가한 것이었다. 특히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과 관련하여 76절 이후의 내용은 일부 역사적 사실과 다

35) 孫楷第, 앞의 책, 1981, 36~38쪽. “其敘文情節 則一依通鑒 順序照抄原文而聯綴之……小儒沾沾 則頗泥史實 自矜博雅 恥為市言 然所閱者不過朱子綱目 雖澗水通鑒亦未暇觀 鉤稽史書 既無其學力 演義生發 又愧此繁才 其結果為非史抄 非小說 非文學 非考定 凡前人之性格趣味 既不能直接得之於正史 又不能憑其幻想構成個人理想中之事實人物 如打話人所為 固謂雅俗共賞 實則兩失之無一而是……於過去吾國小說中 乃留此一種 亦可謂不幸之事矣”

36) 彭知輝, 「『唐書志傳』“按鑒演義”考辨」, 『山西師大學報』 34, 2007, 127~128쪽.

른 오류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역사적 사실과 큰 흐름에서는 부합하고는 있는데, 『資治通鑑綱目』에는 약 5,000여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唐書志傳通俗演義』에서는 3만여 자로 늘였다. 둘째, 세부적인 묘사를 추가하고, 사건의 공백부분을 구체적인 묘사를 상세하게 보충하였는데, 특히 인물들 간의 대화를 묘사함으로써 추상적인 역사서술을 구체적인 문학서술로 전환하여 독자에게 실감을 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熊大木은 사실에 기반을 두되 다양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용을 추가하였다.³⁷⁾ 『唐書志傳通俗演義』는 “按鑒演義”의 편찬방식을 사용하였지만 단순히 사료를 편집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 사료의 편집, 상상력에 기반한 서술 내용의 추가, 언어의 윤색, 인물의 가공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唐書志傳通俗演義』는 문학적인 특징이 선명하다. 『唐書志傳通俗演義』의 주제는 명확하게 살리고 인물의 이미지를 잘 구현해낸 역사소설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의 일부 講史平話와 비교해보면 『唐書志傳通俗演義』는 구절 구성, 스토리, 서술 기량 등 다방면에서 성숙된 작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명대에 ‘按鑒演義’의 편찬이 성행한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 『三國演義』가 광범하게 전파되고 특히 嘉靖元年(1522)에 官刻版의 출판으로 『三國演義』는 士君子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장편 통속소설은 사회의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파되었고 점점 많은 士君子들은 장편 통속소설에 관심을 두었다. 『三國演義』의 ‘七實三虛’, ‘半文半白’의 서술방식은 문인의 취향에 부합하였다. 士君子들은 『三國演義』를 모범으로 종전의 “野史로 評話를 만들어 맹인들이 演說하게 하였지만, 그 동안 言辭가 鄙謬해졌으니 또 비루함에서 잘못된 것이다”의 說書 전통을 비판하면서 “信史를 羽翼하되 어기지 않는다”라는 창작 원칙을 정하였다. 한편 정통 문인들이 장편소설의 편찬을 하찮게 여길 때 熊大木으로 대표되는 書坊主들이 명 중기 장편소설 편찬의 공백을 메꾸어 나갔던 것이다.³⁸⁾

이러한 書坊主 편찬자들은 “史가 文보다 귀하다(史貴於文)”라는 전통적인 관념과 士人文化가 世俗文化에 대한 駁正 등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을 편찬할 때 사전의 형식과 구성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修史를 숭고한 사업으로 여겼으며 經書와 각종 典籍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史貴於文’의 전통적인 관념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하여 후세의 서술은 자연스럽게 사전을 본받았다. 소설은 처음부터 ‘小道’로 평가되었고 詩文 등 전통적인 문학과는 달리 배제되었다. 그러나 명 중후기 嘉靖, 萬曆 연간에 王學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愚夫愚婦를 위해 立敎하고 裨益風教를 위하여 소설을 편찬하고 비평하는 문인들이 모였다. 이들이 소설을 창작하면서 ‘史貴於文’의 전통적인 관념의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편찬에서 史筆을 잃지 않고 ‘經史並傳’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白話小說 『東西漢演義』, 『東西晉演義』, 『南北史演義』 등은 사서의 부류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였고, ‘按鑒演義’, ‘參采史鑒’한 『唐書志傳通俗演義』도 마찬가지였으며, 經史가 갖추지 못한 것을 보태려는 목적으로 소설을 편찬하였다. 『三國演義』는 七實三虛로 구성되었고 弘治年間 文人 蔣大器의 序(三國誌通俗演義序)를 보면 “前代에는 일찍이 野史로 評話를 만들어 맹인들이 演說하게 하였지만, 그 동안 言辭가 鄙謬해졌으니 또 비루함에서 잘못된 것이며 士君子들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蔣大器를 비롯한 士君子들이 ‘失之於野’한 講史平話에 대해 경

37) 彭知輝, 앞의 논문, 2007, 129~130쪽.

38) 彭知輝, 위의 논문, 2007, 130~131쪽.

시한 태도였다. 『唐書志傳通俗演義』의 편찬자 熊大木은 사화에 대해서 “비록 가끔씩 한두 개를 채택하였지만 風雅에 의해 창작하고자 하므로 대다수는 버리게 되었다”³⁹⁾라고 하였으므로 그 태도를 알 수 있다.⁴⁰⁾ 또한 世德堂本 『唐書志傳通俗演義』 30절에 대해서 題評作者 陳繼儒는 “다른 소설가의 史에는 合劍의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터무니없는 것이니, 이는 어긋남에 가깝다”라고 하여 『唐書志傳通俗演義』에 기록한 민간 전설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陳繼儒가 世德堂本 『唐書志傳通俗演義』 序에서 말한 “그 사실들은 때때로 譎狂의 설에서 채택한 것이니 正史보다 혹 다 합치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대략 綴拾하여 본 演義의 평으로 썼다”라는 사상과 부합된다. 陳繼儒는 역사연의를 經史에서 부족한 바를 보충한 遺史로 보았다.⁴¹⁾ 그러므로 熊大木은 『唐書志傳通俗演義』를 편찬할 때 卷首에 순차로 劉文靜을 위시로 한 唐臣紀, 史大奈를 위시로 한 諸夷蕃將紀, 李道宗을 위시로 한 皇族紀와 李密을 위시로 한 別傳을 기록하였으며, 각 인명 밑에 각자의 본적, 관직, 직위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한 秦王과 동시의 각지 反王들의 別傳에서 모두 그들이 칭왕한 시간과 제호를 기록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史記』, 『漢書』의 人物傳記의 체제로 기울면서 소설을 史傳으로 착각하고자 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⁴²⁾

또한 각 권에는 모두 해당 권에 기록한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 연대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권1에 “起自隋煬帝大業十三年 訖於隋恭帝義寧二年 首尾共二年事實”, 권8에 “起唐太宗貞觀十九年乙巳歲 止唐太宗貞觀十九年乙巳歲 首尾凡一年事實”라고 표시하였다. 문장에 自註를 가입하여 작품에서 언급한 사람과 일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였다. 그 중 ‘按’, ‘按史’, ‘按唐史’로 기록한 곳은 10여 곳 있다. 작품 중에 檄, 奏, 表, 誓, 詔, 榜, 告, 露布, 疏, 書信 등 문헌자료를 대량으로 인용하였다. 작품의 史의인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熊大木은 論贊의 방식을 사용하여 항상 한 고사 뒤에 詩贊, 혹은 史論을 인용하여 해당 고사에 대해 평가하였다. 詩贊의 경우 항상 “後人有詩贊曰”, “後人有詩嘆曰” 등으로 나오고 있다. 전체 총 80여 편을 삽입하였는데 ‘後人’, ‘宋賢’ 등으로 표기하여 詩의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도 하였고, ‘靜軒先生’, ‘靜軒周先生’처럼 이름을 밝힌 것도 18편 정도 존재한다. 史論의 경우 소설 중 ‘綱目斷曰’, ‘胡氏曰’, ‘範氏曰’, ‘司馬溫公曰’ 등 20여 곳 있었다. 이러한 편찬방식은 사건을 따르려고 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⁴³⁾

결국 熊大木은 이러한 ‘史貴於文’의 전통적인 관념의 영향을 받았고 ‘按鑒演義’의 형식으로 『唐書志傳通俗演義』를 편찬하였다. ‘按鑒演義’의 편찬방식은 역사소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士君子의 열람심리에도 부응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찬방식은 자연스럽게 종전의 창작방식을 대체하였으며, 萬曆年間に 이르러 문인 독자층이 늘어나면서 ‘按鑒演義’는 역사소설 창작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⁴⁴⁾

39) 雖偶采一二 而欲托附風雅 大數拋棄

40) 孫楷第, 앞의 책, 1981, 39쪽.

41) 羅陳霞, 『『唐書志傳』·『兩朝志傳』의 史傳傾向分析』, 『鹽城師專學報』 1, 1998, 12~13쪽.

42) 羅陳霞, 위의 논문, 1998, 11쪽.

43) 雷勇·蔡美雲, 『明代隋唐歷史題材小說的文體探索』, 『明清小說研究』 139, 2021, 109~110쪽.

44) 한편 일부 학자들은 熊大木의 『唐書志傳通俗演義』이 지나치게 사서에 구애되고 “托附風雅”하는 경향이 강하여 오히려 소설의 문학성이 부족해졌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羅陳霞, 앞의 논문, 1998, 14쪽; 雷勇·蔡美雲, 위의 논문, 2021, 112쪽).

Ⅲ. ‘太宗東征記’의 내용과 성격

『唐書誌傳通俗演義』가 주목되는 것은 안시성주 양만춘 전승과 관련해서이다. 우리측 기록에서 당서연의에 대한 내용은 안시성주와 관련해서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서연의가 언급되고 있는 조선시대 문헌 기록은 김시양의 부계기문, 안정복의 무오연행록,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이 있다.⁴⁵⁾

가-1) 安市城主가 唐 太宗의 精兵에 항거하여 마침내 외로운 성을 보전하였으니, 공이 위대하다. 그런데 성명은 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서적이 드물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고구려 때의 史籍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임진왜란 뒤에 중국의 將官으로 우리나라에 援兵 나온 吳宗道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안시성주의 성명은 梁萬春이다. 唐 太宗東征記에 보인다.”고 하였다. 얼마 전 감사 李時發을 만났더니 말하기를, “일찍이 唐書衍義를 보니 안시성주는 과연 양만춘이었으며, 그 외에도 안시성을 지킨 장수가 무릇 두 사람이었다.”고 하였다.⁴⁶⁾

가-2) 安市城主는 조그마한 외로운 성으로 천자의 군대를 막아냈으니, 세상에 드문 책략가일 뿐만 아니라, 성에 올라가 절하고 하직하는데 말이 조용하여 예의의 바름을 얻었으니, 진실로 道를 아는 군자이다. 아깝게도 역사에서 그의 이름을 잃었는데, 명나라 때에 이르러 唐書衍義에 그의 이름을 드러내어 梁萬春이라고 하였다. 어떤 책에서 찾아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안시성의 공적이 책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다. 진실로 그의 이름이 잃어지지 않고 전하였더라면 通鑑綱目과 東國史記에 웅당 모두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찌 수백 년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衍義에 나오겠는가. 거의 믿을 수 없다.⁴⁷⁾

가-3) “안시성이 遼陽 開州 지방에 있으니 여기서 70리라.”고 하나 대저 잘못 전해진 의논이라. 세상이 전하되, “안시성주를 楊萬春이다”하니 이 말이 唐書衍義라 하는 책에 있으나, 史記에 나타난 일이 없으니, 족히 취하여 믿지 못하리라 하니, 이는 분명한 의논이라.⁴⁸⁾

가-4) 三淵이 燕京으로 가는 老稼齋를 전승한 시에, ‘天秋大膽楊萬春 箭射虬髯落睥睨’라고 하였는데, 상고하건대 安市城 城主가 양만춘이라는 것은 唐書演義에서 나온 말로, 好事者가 그런 姓名을 만든 것이니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는 月汀雜錄과 徐居正의 四佳亭集에 자세히 보인다 한다. 牧隱의 貞觀吟에,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라고 하였는데, 玄花는 눈을 말하고 白羽는 화살을 말한다. 세상에서 전해 오기로는 당 태종이 高句麗를 치기 위하여 안시성까지 왔다가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는데, 唐書와 通鑑을 상고하여 보아도 모두 실려 있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史官이 반드시 중국을 위하여 숨긴 것이리니 기록하지 않은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이는 金富軾의 三國史記에도 실려 있지 않은데, 목은은 어디서 이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⁴⁹⁾

가-5) 우리나라의 姓名 異同에 대하여는 아직 자세히 상고해 보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李芝蘭의 자를 式馨, 夷黔弼의 자를 官佼라 하는 등 姓苑에 적지 않게 보이는가 하면, 신라 때 金生의 이름을 玖라

45) 안시성주 전승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의 참조할 수 있다(정호섭, 위의 글, 2020).

46) 『月汀漫筆』

47) 『涪溪記聞』

48) 『戊午燕行錄』 제1권 戊午年(정조 22) 11월

49) 『靑莊館全書』 第32卷 淸脾錄一

고 한 이는 坯窩 金相肅이고, 고구려때 안시성주를 楊萬春이라 한 말은 唐書演義에 보이는데, 믿을 수 없다.⁵⁰⁾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문헌들에서 당서연의가 안시성주와 관련한 전거로 활용되고 있다. 윤근수의 월정만필의 기록을 보면 이시발이 당서연의를 언급 기록이 가장 먼저 보인다. 이는 이시발이 당서연의를 직접 보고서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서연의를 보고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양만춘 이외에도 안시성을 지키던 장수가 2명 더 있다고 쓰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당서지전통속연의에는 안시성 전투에 양만춘 이외의 2명의 장수가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계기문』에서는 양만춘이 당서연의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전거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안정복도 『무오연행록』에서도 당서연의를 직접 확인하고 쓴 것은 아닌 듯하고, 안시성주가 양만춘이라고 하는 내용은 역사서에 나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덕무는 안시성 양만춘은 당서연의에서 나온 말이지만, 호사자가 그런 성명을 만들어낸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썼다. 이규경도 안시성주를 양만춘이라고 한 것은 당서연의에 보이지만,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도 양만춘의 성명을 楊萬春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당서연의를 직접 본 것은 아닌 듯하다. 이처럼 이시발이 말한 내용 이외의 대부분은 직접 『唐書志傳通俗演義』를 직접 보지 않은 기록인 듯 한데, 인용구도 唐書衍義, 唐書演義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안시성주의 성명도 梁萬春과 楊萬春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당서지전통속연의를 직접 보고 쓴 것이라면 당서지전통속연의에 서술된 바와 같이 전거는 『唐書志傳通俗演義』 혹은 唐書演義로, 성주의 이름은 梁萬春으로 적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시발의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기재된 당서연의를 직접 보고 인용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시발이 직접 본 것으로 이해되는 당서연의는 다른 이들은 직접 구해 보지 못한 채, 이시발이 명나라로부터 구해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외에도 당서연의가 조선 후기에 문인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특히 일본에서 당서연의의 여러 판본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국내에 당서연의와 관련한 어떠한 판본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안시성주와 관련하여 또 다른 전거로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것이 소위 ‘太宗東征記’이다.

나-1) 安市城主가 唐太宗의 精兵에 항거하여 마침내 외로운 성을 보전하였으니, 공이 위대하다. 그런데 성명은 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서적이 드물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고구려 때의 史籍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임진왜란 뒤에 중국의 將官으로 우리나라에 援兵 나온 吳宗道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안시성주의 성명은 梁萬春이다. 唐太宗東征記에 보인다.”고 하였다. 얼마 전 감사 李時發을 만났더니 말하기를, “일찍이 唐書衍義를 보니 안시성주는 과연 양만춘이었으며, 그 외에도 안시성을 지키는 장수가 무릇 두 사람이었다.”고 하였다.⁵¹⁾

나-2) 唐太宗東征記 安市城主梁萬春云⁵²⁾

50) 『五洲衍文長箋散稿』

51) 『月汀漫筆』

52) 『石洞集』卷之六 雜著 謾記 下

나-3) 安市城在遼東 城主姓名乃梁萬春見於太宗東征紀⁵³⁾

나-4) 城主의 姓名이 東史에는 전하지 않는데, 太宗東征記에 梁萬春이라 하였다. 이것이 金荷譚의 破寂錄에서 나왔는데, 經世書補編에도 그러하다. 상고하건대 혹은 鄒定國이라 하였다.⁵⁴⁾

나-5) 玄花白羽牧詩眞 無怪諱書謹史臣 獨嘆城主忠如彼 不表姓名梁萬春 / 李穡詠貞觀詩曰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徐居正東人詩話云 當時史官必爲中國諱 無怪其不書也 城主 梁萬春 見於太宗東征記⁵⁵⁾

위의 기록들에는 공통적으로 태종동정기가 등장한다. 때문에 일찍부터 태종동정기가 주목되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태종동정기도 당서연의처럼 안시성주 양만춘에 관한 전거로 활용되어 왔는데, 현재는 대체로 두 자료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서연의와 태종동정기를 전거로 제시했던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당서연의, 태종동정기를 전거로 사용한 문헌

저자	서적명	안시성주 성명표기	인용 전거 표현
윤근수(1537~1616)	月汀漫筆/月汀集	梁萬春	吳宗道(太宗東征記) 李時發(唐書衍義)
김시양(1581~1643)	涪溪記聞	梁萬春	唐書衍義
이문재(1617~1689)	石洞集	梁萬春	太宗東征記
홍만중(1643~1725)	東國歷代總目	梁萬春	太宗東征紀
안정복(1712~1791)	東史綱目	梁萬春	太宗東征記
	戊午燕行錄		唐書衍義
이덕무(1741~1793)	靑莊館全書	楊萬春	唐書演義
윤 기(1741~1826)	無名子集	梁萬春	太宗東征記
이규경(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	楊萬春	唐書演義

위의 표와 같이 조선시대 문헌에는 당서연의 혹은 太宗東征記(紀)라는 전거자료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자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윤근수의 월정만필과 월정집, 이문재의 석동집, 홍만중의 동국역대총목, 안정복의 동사강목, 윤기의 무명자집 등에 등장하는 태종동정기가 주목받은 것은 바로 이것이 특정한 사서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중국의 어떤 기록에도 태종동정기라는 특정한 서명을 가진 자료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아울러 태종동정기라고

53) 『東國歷代總目』 高句麗

54) 『東史綱目』 附錄 上卷 上 考異

55) 『無名子集』 詩稿 冊六 / 詩 其二百二十一

지칭되었던 자료들이 조선시대 문헌들에서 당서연의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점을 보면 太宗東征記(紀)는 특정한 사서라기보다는 바로 당서지전통속연의의 제7권 제76절에서 시작하는 태종의 고구려 원정과 관련한 여러 전투에 대한 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당서연의나 태종동정기가 전거로 활용되었지만, 여타 많은 기록들에서 인용 전거에 대한 표현도 中國, 世傳, 中原人相傳, 中州雜記, 中國史記, 以愚所聞 등 구체적이지 않거나 전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기록한 것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⁵⁶⁾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서연의를 실제로 보고 쓴 사람을 이시발 외에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아마 당서연의는 조선에서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 이 책을 구해보았다고 한다면 당서연의나 양만춘 등 고유명사에 대해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안시성 전투에 등장하는 여러 장수들에 대한 언급을 지나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서연의의 내용 가운데 태종동정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자. 당서지전통속연의에서 이에 해당되는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第七卷

- 第七十六節 貞觀中君臣論治 高麗國部將專權
- 第七十七節 唐太宗禦駕征東 薛仁貴洛陽投軍
- 第七十八節 李世勣大戰蓋牟郡 王大度智取卑沙城
- 第七十九節 程名振單馬擒麗將 王道宗潰圍退遼兵

第八卷

- 第八十節 薛仁貴斬將立功 董世雄部兵解圍
- 第八十一節 李思摩臂傷流矢 唐太宗白巖鑒兵
- 第八十二節 董世雄詐獻降書 魯揭裏開城納款
- 第八十三節 李世勣兵進安市城 薛仁貴智取黃龍坡
- 第八十四節 高延壽列陣戰唐兵 薛仁貴奪圍救主將
- 第八十五節 高延壽納降李世勣 蓋蘇文保舉東頂漢
- 第八十六節 王道宗築土攻安市 程名振持兵出綠水
- 第八十七節 盧漢三建安死節 蓋蘇文鐵勒征兵
- 第八十八節 白袍將百步穿楊 唐太宗獨契英雄
- 第八十九節 張總管二路取石城 薛仁貴三箭定天山
- 第九十節 長孫臣勸回鑾駕 唐太宗坐享太平

당서지전통속연의의 제7권 제76절에서 제8권 제90절까지의 제목을 보면 연개소문 정변이후 당 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시작하여 철군한 상황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아닌 전거 인용시에 당

56) 정호섭, 위의 글, 2020.

서연의가 아닌 태종동정기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목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당과 고구려와의 645년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당서지전통속연의 제76절은 薛延陀와 眞珠可汗 등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어 고구려왕이 신라의 조공을 단절시키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여 裴思莊을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한 것에서부터 연개소문이 사신을 가둔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신라를 공격하고 백제와 결연을 맺은 이야기 등이다. 아울러 相裏玄獎을 보내 보장왕을 요동군왕으로 책봉한 내용과 褚遂良, 李世勣 등과의 고구려 토벌에 관한 논박 내용 등이다. 여기에는 역사상에 등장하는 당나라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나,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된 裴思莊은 가공의 인물이다. 고구려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보장왕과 연개소문만 실존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고구려 인물로 등장하는 大對盧, 消奴部 등을 사람 이름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신라쪽 인물들로 등장하는 周裏力, 王舒翰, 張啓 등은 모두 가공의 인물들이다.

제77절은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청하고 태종이 張儉으로 공격하도록 한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고구려 정벌의 명분을 천명하고 水陸 30만 병사를 동원하여 출정하는 이야기가 중심이다. 陳大德이 사신으로 가서 만든 指掌圖, 수양제때 고구려 정벌에 참여했던 鄭元璫, 군대를 잘 부린다고 알려진 程名振 등의 이야기는 모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長孫無忌, 張亮, 李世勣, 江夏王 道宗, 薛仁貴 등의 주요 인물이 등장한다. 전쟁은 현토신성에 대한 공격이 주요 내용인데, 여기에 고구려 현토신성을 지키는 고구려 인물 3인이 등장하는데, 漢桂婁, 金精通, 汪茶丘이다. 모두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들이다. 자치통감의 기록에는 “여름 4월 무술일 초하루에 이세적이 通定鎭에서 遼水를 건너 玄菟城에 이르렀다. 고구려가 크게 놀라서 성읍이 모두 문을 닫고 스스로 지켰다.”는 내용이 보인다.⁵⁷⁾

제78절은 현토신성의 상세한 전투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당나라 장수인 曹三良, 江夏王 道宗, 李世勣, 張儉과 고구려 장수인 漢桂婁, 金精通, 汪茶丘과의 싸움이다. 그 과정에서 당군이 신성을 장악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자치통감에는 “여름 4월 임인일 遼東道副大總管 강하왕 도종이 병사 수천을 거느리고 新城에 이르렀다. 折衝都尉 曹三良이 10여 기를 끌고 곧바로 성문을 압박하였다. 성 안에서 놀라고 동요하여 감히 나오는 자가 없었다.”⁵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당군이 신성을 함락한 사실은 없다. 또 하나의 전투는 蓋牟城 전투이다. 당군은 李世勣, 張士貴, 薛仁貴 등 역사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蓋牟城을 지키는 사람은 고구려왕의 사위 都魯花赤과 장수 阿力虎로 설정되어 있는데, 역시 가공의 인물이다. 개모성은 당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태종이 성을 蓋州로 삼았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자치통감에는 “여름 4월 임자일 이세적, 강하왕 도종이 고구려의 개모성을 공격하였다. 여름 4월 계해일 이세적 등이 개모성을 함락시키고, 2만여 구, 군량 10여만 석을 얻었다.”⁵⁹⁾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전투는 卑沙城 전투이다. 張亮, 程名振, 王大度 등이 수군을 동원하여 비사성을 공격하는 이야기이다. 자치통감에는 “장량이 수군을 이끌고 東萊에서 바다를 건너 비사성을 습격하였다. 그 성은 사면이 매달리는 절벽이어서 오직 서문만이 올라갈 수

57) 『資治通鑑』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58) 『資治通鑑』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59) 『資治通鑑』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있었다. 정명진이 병사를 끌고 밤에 이르자, 부총관 王文度가 먼저 올랐다. 5월 기사일 함락시키고 남녀 8,000구를 사로잡았다. 총관 丘孝忠 등을 나누어 파견하여 압록수에서 曜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⁰⁾ 비사성을 지키는 고구려 장수로는 丹須鬼, 白面郎君 등이 등장하는 데 역시 가공의 인물이다.

제79절은 비사성 전투의 내용으로 시작하여 비사성을 당군이 함락시키는 내용이다. 이어 요동성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이다. 요동성을 공격하는 당군은 李世勣, 江夏王道宗, 李思摩, 張士貴, 張君義 등이 등장하고, 요동성을 수비하는 고구려 장수로는 徹萬三, 黑垂環, 高天莫 삼인이 등장한다. 모두 가공의 인물들이다. 연개소문과 보장왕이 요동성을 구원하기 위해 大模達을 불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이끌고 요동을 구원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서술되어 있다. 자치통감에는 “5월 기사일 이세적이 나아가 요동성 아래에 이르렀다. 5월 을해일 고구려 보기 4만이 요동성을 구원하였다. 강하왕 도종이 4,000기를 거느리고 그들을 맞이하여 공격하였다. (중략) 황제가 스스로 수백 기를 거느리고 요동성 아래에 이르러, 사졸이 흠을 지고 참호를 메우는 것을 보았다. 황제가 그 더욱 무거운 것을 나누어 말 위에 그것을 가지고 가니, 관에 따라 다투어 흠을 지고 성 아래에 이르렀다. 이세적이 요동성을 공격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으니, 12일만에 황제가 정예병을 끌고 만났다. 그 성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여 북 치는 소리가 천지를 천동쳤다. 5월 갑신일 남풍이 뿔라지자, 황제가 정예병을 파견하여 중간 끝에 올라 그 서남쪽 누각을 불태우게 하였다. 불이 이어져 성 안을 태우니 이어서 장사를 지휘하여 성에 올랐다. 고구려가 힘껏 싸웠으나 대적할 수 없었다. 마침내 이기고 죽인 바가 1만여 명이었으며, 병사 1만여 명, 남녀 4만 구를 얻었고 그 성을 遼州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⁶¹⁾ 요동성을 지키는 고구려 장수들도 모두 가공의 인물이고, 구원하기 위해 파견되는 大模達을 사람의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80절은 요동성 전투에 관한 내용인데, 당나라 장수로 설인귀의 활약상이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薛仁貴의 활약으로 요동성을 함락하였고, 태종이 기뻐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어 태종이 白巖城을 함락하게 하여 李世勣, 張亮, 張士貴, 李思摩, 薛仁貴 등 당나라 장수가 등장한다. 자치통감에는 “백암성을 지키는 고구려 장수로는 達魯揭裏, 麗三高, 張有威, 劉士安 등 네 명이 등장하는데, 역시 가공의 인물이다. 또 다른 인물로 洪飛虎도 보인다. 사료에는 백암성주로 孫代音 혹은 孫伐音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보장왕과 연개소문이 백암성을 구원하기 위해 董世雄에게 철기병 2만 명을 주어 나아가서 白巖城의 포위를 풀게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董世雄과 두 아들 董琦, 董魁 등도 모두 가공의 인물이다.

제81절과 82절은 백암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다. 전투과정에서 李思摩가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고, 태종이 백암성에 도착하여 태종이 李思摩의 상처를 보고 친히 입으로 어혈을 빨아주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다. 고구려 백암성에서 장수들이 거짓 항복을 하고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당군과 전투를 벌인 내용이다. 당군의 재차 공격으로 백암성이 항복하였다는 내용이다. 당 태종이 항복을 받고 백암성의 인민들을 위호한 이야기이다. 李世勣, 契苾何力, 薛萬備, 張士貴, 薛仁貴 등이 고구려 장수들과

60) 『資治通鑑』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61) 『資治通鑑』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전투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치통감에는 “5월 을미일 백암성으로 군대를 진격시켰다. 5월 병신 일(29) 右衛大將軍 李思摩가 弩矢에 맞았다. 황제가 직접 그를 위하여 피를 빨았다. 장사가 그것을 듣고 감동하지 않음이 없었다. 오골성에서 병사 1만여 명을 파견해 백암성을 위하여 구원하였다. 장군 契苾何力이 날랜 기병 800명으로 그들을 공격하였다. 하력이 몸을 빼어 진영에 빠지니, 창이 그 허리를 맞혔다. 尙輦奉御 薛萬備가 단기로 가서 그를 구원하여 만 단위의 무리 속에서 하력을 빼서 돌아왔다. 하력은 기가 더욱 분하여 상처를 묶고 싸워서 기병을 따라 펼쳐 공격하니, 마침내 고구려 병사를 격파하였다. 도망가는 무리를 수십 리나 쫓아서 1,000여 급을 참수하였으나, 때마침 어두워져서 추격을 중지하였다. 설만비는 설만철의 동생이다. 6월 정유일 李世勣이 백암성 서남쪽을 공격하였는데 황제가 그 서북쪽에 다가갔다. 城主 孫代音이 몰래 그의 심복을 파견하여 항복을 받아달라고 청하면서, 성에 도착하였을 때 칼과 도끼를 던져버리는 것을 신표로 하겠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저는 항복하기를 원하지만, 성 안에는 따르지 않으려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당의 기치를 그 사자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반드시 항복할 것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성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 대음이 기치를 세우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 군사가 이미 성에 올라온 것으로 여기고 모두 그를 따랐다. (중략) 이세적이 이에 물러나니, 성 안에서 남녀 1만여 명을 얻었다. 황제가 물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들의 항복을 받았으며, 이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고 8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帛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다른 성의 군사로 백암성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위로하고 타이르면서 양식과 무기를 주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맡겨버렸다. (중략) 백암성을 巖州라고 하고, 손대음을 刺史로 삼았다. 글필하력의 상처가 무거워, 황제가 스스로 약을 발라주었다. 하력을 찢은 자인 高突勃을 조사하여 잡아오게 하고, 글필하력에게 주어서 스스로 그를 죽이게 하였다. 글필하력이 아뢰었다. “그는 그 주인을 위하여 칼날을 무릅쓰고 신을 찢었으니, 곧 충성스럽고 용감한 병사입니다. 그와 더불어 처음에는 서로 알지 못하였으니, 원수질 일은 아닙니다.” 마침내 그를 놓아주었다.⁶²⁾고 기록하고 있다.

제83절은 백암성을 巖州로 삼고 안시성을 공격하기 위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건안성과 안시성에 대한 공격 순서를 논의하는 내용으로 당 태종이 李世勣의 의견에 따라 안시성을 먼저 공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자치통감에는 “황제가 백암성에서 이기자 이세적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기로 안시성은 험하고 군사도 정예이며 그 성주도 재주와 용기가 있어서, 막리지가 반란하였을 때에도 성을 지키면서 복종하지 않으니 막리지가 이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킬 수 없어서 인하여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 건안성은 병사가 약하고 양식도 적어서, 만약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나가서 이를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공은 먼저 건안성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고, 건안성이 함락되면 안시성은 우리 뱃속에 있게 된다. 이것은 병법에서 이른바 ‘성에는 공격하지 않아야 하는 곳도 있다.’라는 것이다.” 대답하였다. “건안성은 남쪽에 있고 안시성은 북쪽에 있으며 우리 군량은 모두 요동에 있는데, 지금 안시성을 넘어서 건안성을 공격하다가 만약 적들이 우리들의 운송로를 끊게 된다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먼저 안시성을 공격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안시성이 함락되면 북을 울리며 가서 건안성을 취할 뿐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공을 장수로 삼았으니 어찌 공의 계책을 쓰지 않겠

62) 『資治通鑑』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資治通鑑』 198 唐紀 14 太宗 下之上.

는가? 내 일을 그르치지 말라.” 세적이 마침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⁶³⁾라고 기록하고 있다.

李世勣, 張士貴, 契苾何力, 薛萬備, 李思摩, 薛仁貴 등의 당나라 장수와 안시성을 수비하는 고구려 장군으로 絶奴部の 主帥 梁萬春, 鄒定國, 李佐升과 灌奴部の 主帥 歐飛, 曷武, 張猴孫 총 6명이 등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두 가공의 인물로 볼 수 밖에 없다. 안시성 전투 초반부는 黃龍坡라는 곳에서의 전투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이 전투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다.

제84절은 黃龍坡 전투의 결과 당군이 승리하였고, 灌奴部の 主帥 歐飛, 曷武, 張猴孫이 모두 전사한 내용과 당군이 안시성을 공격하기 위해 주둔한 내용이다. 고구려는 구원을 요청하였고, 보장왕과 연개소문이 의논하여 北部都督 高延壽, 高惠真을 불러 15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安市城을 구원하게 하고 左丞相 大對盧가 부조하도록 한 내용이다. 여기서도 大對盧를 사람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다. 당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는 내용과 고구려 구원병이 도착하고 고연수가 대대로의 계책을 듣지 않고, 당군과 직접 싸운 소위 ‘주필산 전투’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자치통감에는 “6월 정미일 車駕가 요동을 출발하였다. 6월 병진일 안시성에 이르러 병사를 진격시켜 그곳을 공격하였다. 6월 정사일 고구려의 북부 靺薩인 고연수·고혜진이 고구려와 말갈의 병사 15만 명을 이끌고 안시성을 구원하였다.”⁶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 장수 霍雲龍, 黃毛壽 등의 이름도 보이는데, 가공의 인물이다.

제85절은 고연수, 고혜진이 당군에 항복하는 내용이다. 자치통감에는 “6월 기미일 고연수·고혜진은 그 무리 3만 6,800명을 이끌고 항복을 받아달라고 청하였고, 軍門에 들어와서 무릎으로 기어서 앞으로 나와서 절하고 엎드려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하였다. (중략) 말갈의 3,300명은 붙잡아서 모두 물어버렸다. 획득한 말은 5만 필이고 소는 5만 두이며 철갑은 1만 벌이고 다른 기계도 이와 같았다. 고구려에서는 온 나라가 크게 놀랐고 後黃城·銀城은 모두 스스로 빠져 달아나니, 수백리 사이에는 다시 사람과 연기가 나지 않았다. 황제가 역참으로 편지를 써서 태자에게 알리고 이로 인하여 고사렴 등에게도 편지를 보내기를, “짐이 장수가 되어 이와 같이 하였는데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행차하였던 산의 이름을 바꾸어 駐蹕山이라고 하였다.”⁶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 인물로 祖文魯가 등장하는데, 역시 가공의 인물이다. 안시성에서 역시 고구려 정부에 구원을 청하였는데, 보장왕과 연개소문이 東頂漢, 曹觀, 詹虎 등을 구원하도록 하고 12만명을 거느리도록 한 내용이다. 구원병이 도착하여 李思摩, 黃常, 霍茂 등과 전투를 벌였는데, 역시 등장하는 東頂漢, 曹觀, 詹虎 등의 고구려 장수명과 그 사건 자체가 역사 기록에 없는 내용이다.

제86절은 東頂漢 등 구원병과 李思摩, 薛仁貴, 契苾何力 등과의 전투 상황에 대한 묘사이고, 전투 결과 당군이 승리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태종은 밤낮 병사를 거느리고 安市城을 공격하였으나, 한 달 넘어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李世勣이 상주하여 성을 극복한 날에는 군인과 백성들이 구분 없이 남녀들을 모두 생매장할 것을 정하였다는 서술이다. 이어 고연수가 태종에게 오골성을 먼저 공격할 것을 말하는 내용과 長孫無忌가 이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고, 江夏王 道宗이 土山을 쌓자고 건의하여 토산을 쌓았다는 내용이 서술

63) 『資治通鑑』 198 唐紀 14 太宗 下之上.

64) 『資治通鑑』 198 唐紀 14 太宗 下之上.

65) 『資治通鑑』 198 唐紀 14 太宗 下之上.

되고 있다. 이어진 공격이 20여일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태종이 伏愛를 참수한 이야기도 서술되어 있다. 대체로 자치통감 등 사료에 기반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어 張亮, 程名振, 王大度, 洪寶, 廖英 등이 건안성을 공격하는 내용이다. 건안성을 방어하는 고구려 장수로는 盧漢二, 盧漢三, 張鼎石, 王朝奉 등 네 명이 등장하는데 역시 가공의 인물들이다.

제87절은 당군이 건안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이야기이다. 건안성 함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자치통감에는 건안성 아래에서 공격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어 당 태종이 안시성을 함락시키고자 공격한 내용이다. 고구려는 梁萬春, 鄒定國, 李佐升 등이 수비하였고, 고구려왕이 右丞 大吐摔의 건의에 따라 鐵勒國에 사신 帛衣頭大兄을 파견하여 금옥 수대를 가지고 가서 군대를 빌리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大吐摔을 사람 이름으로 썼고, 철록국을 안시성 전투에 개입시켰는데,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어찌되었건간에 고구려왕은 병마 5만을 도와주었고 殿前大將 溫沙多門이 통솔하게 하여 鐵勒 인마와 합쳐 총 15만 명의 군대로 안시성을 구원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 내용 역시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는 허구적인 서술이다. 당군은 이에 契苾何力和 史恭, 葛定方, 郭翟, 王許忠 등 네 사람을 새로 장수로 삼아 石城에서 고구려와 鐵勒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 당군이 패한 내용이다.

제88절부터 제89절은 石城과 天山 전투와 관련한 내용이다. 석성 전투에는 철록의 여러 장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두 가공의 인물로 보인다. 이 전투에서도 설인귀가 활약하고 있다.

제90절은 石城 전투와 안시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다. 석성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석성을 함락하지 못한 당군은 안시성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초겨울이 찾아왔고 長孫無忌가 태종에게 간언하여 철군하는 내용이다. 철군일에 고구려 장수 梁萬春은 여러 장수를 이끌고 성위에 올라가 관망하였고, 무릎을 꿇고 한 목소리로 성가에 절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당 태종이 비단 백 필을 하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태종이 안시성을 떠나 백암성에 이르러 주둔하였음을 적고 있다. 이 역시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요동성에 가서 주둔한 것으로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자치통감에는 “9월에 황제는 요동이 일찍 추워지고 풀은 마르며 물은 얼어서 군사와 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양식이 장차 떨어지려 하여, 재미 일 군사를 돌리도록 칙서를 내렸다. 먼저 遼州·蓋州 2주의 호구를 뽑아서 요수를 건너게 하고, 이에 안시성 아래에 병사를 시위하면서 선화하였다. 성 안에서는 모두가 흔적을 감추고 나오지 않다가 성주가 성에 올라가서 절하며 작별인사를 하니, 황제가 그가 군게 지킨 것을 가상히 여겨 纁 100필을 하사하면서 군주를 섬긴 것을 격려하였다. 이세적, 강하왕 도종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4만을 거느리고 후위를 맡게 하였다. 9월 을유일 요동에 이르렀다.”⁶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645년 당 태종의 친정의 성과로 수십 성을 뚫았고 遼, 蓋, 巖 삼주의 7만 호를 중국으로 내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銀城에 주둔했을 때 4만 급을 베었고 죽은 자가 3천명 이었고 전마는 십분의 칠 팔이 모두 죽었다고 하여 李世勣이 말한 손실을 듣고 계다가 성공하지 못하여서 깊게 후회하였으며 탄식하기를 ‘만약 魏徵이 있었다면, 이번 행동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이어 백암성을 떠나

66) 『資治通鑑』 198 唐紀 14 太宗 下之上.

요해를 건너 임유관에 도착하자 태자자 백관을 이끌고 영접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자치통감에는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玄菟·橫山·蓋牟·磨米·遼東·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의 10성을 함락시키고, 遼州·蓋州·巖州 3주의 호구를 옮겨서 중국에 들어온 자가 7만 명이었다. 新城·建安·駐驛의 세 큰 전투에서 참수한 것이 4만여 급이었고, 戰士로서 죽은 자가 거의 2,000명이었으며, 戰馬로서 죽은 것은 10에 7~8마리였다. 황제는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깊이 후회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魏徵이 만약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번 원정을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마를 달려서 위징에게 少牢로 제사지내도록 명령하고 만들었던 비를 다시 세우게 하며, 그의 처자를 불러서 행재소로 오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물품을 하사하였다. 67)”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당서지전통속연의는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관한 이야기를 자치통감강목을 기본으로 하는 역사기록을 토대로 하여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공의 인물과 이야기까지 추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당서지전통속연의에 묘사된 태종동정기의 내용과 서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당나라 인물들은 주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서술한 반면 고구려측 인물들은 대부분 가공의 인물을 창작하여 묘사하였다. 또한 고구려 관직, 관등을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오해하고 서술한 측면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인 고구려 최고 무관직인 大模達, 최고의 관등이라고 할 수 있는 大對盧와 帛衣頭大兄 등이다. 고구려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고구려의 여러 성과의 전투를 묘사하면서 실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가공의 인물을 창작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조선시대 문헌에서 안시성주로 알려진 양만춘 역시도 여타 전투에서 등장하는 많은 고구려 인물들처럼 연의식 소설을 쓰면서 창작한 가공의 인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요동에 대한 지리나 교통로 및 성의 위치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각 성의 전투 상황과 인근 지역에서의 전투 상황, 그리고 행군로 등에서 실제 역사와 상이하거나 서술이 어색한 측면이 확인되기는 점이다. 이것은 요동 지역의 고구려 성의 위치나 교통로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만 정확한 묘사가 가능하였을 것인데, 당시 그런 것을 고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명대에 와서도 당서, 자치통감, 자치통감강목 등을 통해서 고구려에 관한 자세한 지리 및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셋째, 당군이 고구려의 건안성, 신성 등의 전투에서는 성을 함락하거나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리하였거나 성을 점령하거나 함락시킨 전투로 서술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안시성 전투는 승리하지 못하였음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고구려 왕이 연개소문의 건의로 인물을 추천받아 중앙에서 요동에 있는 성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한 여러 차례의 구원군은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넷째, 당 태종이 친정한 과정에서 보인 성군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전투를 지휘하거나 부하 장수나 군졸에 대한 황제의 특별한 예우나 고구려 민에 대한 배려 등이 자세하게 서술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중국 역사에서 3대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인 당 태종에 대해 성군으로서의

67) 『資治通鑑』 198 唐紀 14 太宗 下之上.

면모를 강조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당나라 장수로서 각 전투에서 활약한 장수들 가운데 이세적과 설인귀의 활약상이 특히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 당 태종 친정시에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역사에 보이지 않는 철록 세력이 고구려의 요청으로 전투와 참가하여 당군과 대결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구려왕이 사신 帛衣頭大兄을 파견하여 금옥 수대를 가지고 鐵勒國으로 가서 군대를 빌리게 하였고, 이를 통해 철록이 전쟁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여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帛衣頭大兄은 고구려의 관등일 뿐이고, 萬留公, 萬濟公, 萬通公 등 철록 세력의 장수 이름도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가공의 인물들이다. 실제로 645년 전쟁에서 실제로 철록 세력이 고구려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군사를 동원하고 실제 전투에 참전한 바는 없다. 다만 현재 철록 세력의 한 부족으로 상정될 수도 있는 설연타와 전쟁 진행과 관련한 정세상으로 일정부분 관련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⁶⁸⁾ 직접 당군과의 전투에 고구려와 연합하여 싸운 바는 없다. 645년 전쟁 이후에 설연타는 646년 당군의 토벌로 멸망하여 당의 간접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철록이 고구려와의 연합군으로 전투에 동원된 것은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서 철군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철록 세력이 직접 군사를 동원하여 전투에 참여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삼고자 한 듯 하다. 당 태종의 고구려 친정 실패의 원인을 다른 세력이 개입한 것에서도 찾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웅대목의 당서지전통속연의와 간행과 판본에 대해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살펴보고 그 대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조선전기 이후부터 언급되어 온 ‘당서연의’와 ‘태종동정기’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당서연의의 내용 가운데 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한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태종동정기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그 내용의 검토를 통해 그 서술이 실제 역사와 다른 면도 상당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특히 고구려와 관련하여 많은 가공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당태종과의 전투를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이 주목되는데, 바로 안시성주 양만춘도 이러한 가공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였다. 고구려의 여러 성을 지킨 가공의 장수의 이름들이 당서연의에 다수 언급되고 있는 바, 이는 소설의 재미를 이끌어 나가려고자 하는 웅대목의 상상력에 기반한 창작의 소산이었다.

조선 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당서연의나 태종동정기 등은 조선에 널리 유통된 것 같지는 않은 듯하다. 이시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서연의를 직접 확인하고서 언급한 기록이 잘 확인되지 않을뿐더

68) 대체로 645년 당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교착상태에 있었을 무렵에 고구려가 설연타에 대해 공작을 하여 설연타가 당에 만기를 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태돈은 자치통감 편년으로 보았을 때 설연타의 당 북면 공격이 당군의 철수로 이끈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하였고, 서영교는 연개소문의 설연타 공작의 성공으로 전선이 안시성에서 내몽골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았다(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2009, 105~106쪽; 서영교, 「연개소문의 對설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동북아역사논총』 44, 2014).

러 실제로 국내에서 어떤 판본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당시 조선 지식인층들이 이전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나 이전 학자들의 책을 통해 읽었던 내용을 확인없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서연의 혹은 태종동정기는 중국 3대 황제의 하나로 칭송받는 당 태종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안시성 전투와 그 성주를 주목한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구설의 대상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결국 이러한 전승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기억되어 문학적 서사가 역사적 사실화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던 셈이다.

〈참고문헌〉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

『月汀漫筆』

『涪溪記聞』

『戊午燕行錄』

『靑莊館全書』

『五洲衍文長箋散稿』

『石洞集』

『東國歷代總目』

『東史綱目』

『無名子集』

張秀民, 「明代印書最多的建寧書坊」, 『文物』 6, 1979.

胡士瑩, 『話本小說概論』(下冊), 中華書局, 1980.

孫楷第,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 人民文學出版社, 1981.

方彥壽, 「明代刻書家熊宗立述考」, 『文獻』 1, 1987.

江蘇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社, 1990.

陳大康, 「關於熊大木字、名的辨正及其他」, 『明清小說研究』 3, 1991.

羅陳霞, 「『唐書誌傳』·『兩朝誌傳』的史傳傾向分析」, 『鹽城師專學報』 1, 1998.

陳大康, 「熊大木現象: 古代通俗小說傳播模式及其意義」, 『文化遺產』 2, 2000.

張兵, 『五百種明清小說博覽』 上, 上海辭書出版社, 2005.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29: 2, 2006.

彭知輝, 「『唐書誌傳』“按鑒演義”考辨」, 『山西師大學報』 34, 2007.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2009.

胡士瑩, 『話本小說概論』(下冊), 商務印書館, 2011.

黃冬柏, 「日本內閣文庫所藏熊龍峰四種小說考論」, 『中正大學中文學術年刊』 1, 2011.

陳旭東, 「熊大木身份新考」,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7, 2012.

蘇亮, 「熊大木書坊主身份的考證尚難動搖—與陳旭東先生商榷」, 『中南大學學報』 4, 2013.

서영교, 「연개소문의 對鮮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동북아역사논총』 44, 2014.

남재철, 「安市城主의 姓名 ‘양만춘’ 考證(Ⅰ)- 姓名의 出處 樣相 檢討를 中心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35, 2014.

정호섭,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와 안시성주 전승의 추이」, 『고구려발해연구』 67, 2020.

雷勇·蔡美雲, 「明代隋唐歷史題材小說的文體探索」, 『明清小說研究』 139, 2021.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7일에 재투고되어,
2022년 6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7월 7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7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The Publication of Romance of the Tang Dynasty and Description of Taejong-dongJeonggi

Jung, Hosub*

In this paper, I looked at the publication and edition of Romance of the Tang Dynasty, and the author Ung Dae-mok. Among the contents in Romance of the Tang Dynasty, it was also reaffirmed that the data referring to the contents of King Taejong's expedition to Goguryeo was Taejong-dongJeonggi. In addit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cont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scription was different from the actual history.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many fictional characters appear in relation to Goguryeo to explain the battle against Tang Taejong. Yang Man-chun of castellan of Ansi was also one of them. Many of the names of fictional longevity who protected various castles of Goguryeo were mentioned in Romance of the Tang Dynasty, which was the product of creation based on the imagination of Ung dae-mok.

Romance of the Tang Dynasty and Taejong-dongjeonggi,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mentioned since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do not seem to have been widely distributed in Joseon. Except in the case of Lee Si-bal, the records mentioned after directly checking the party's speech are not well confirmed, and in fact, no editions are actually confirmed in Korea. At that time, it seems that the Joseon intellectuals mentioned what they had heard from someone before or what they had read through the books of previous scholars without confirmation. It seems clear that Romance of the Tang Dynasty, or Taejong-Dongjeonggi, was the subject of gossip for intellectuals at the time when they paid attention to the Battle of Anxi Province, which won the battle against Tang Taejong, which is praised as one of the three emperors of China. In the end, this transmission was handed down and remembered by many people afterwards, providing the basis for the historical fact of literary narratives.

[Keywords] Ung daemok, Romance of the Tang Dynasty, Goguryeo, Yang Manchun, Castle of Ansi, Taejong-Dongjeonggi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